

아오시마 신사의 역사

아오시마섬은 예로부터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당시에는 섬 전체가 신이 머무는 장소로서 신앙의 중심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섬에 다리가 놓이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은 간조가 되면 섬으로 걸어 들어가 바다에서 몸을 깨끗이 한 후 의식을 치렀습니다. 신사가 이곳에 위치했던 시기를 나타내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헤이안 시대(794 - 1185)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도 시대(1603 - 1867)에는 오비번(지금의 미야자키현 남부 연안 지역)의 다이묘(영주)였던 이토 가문의 비호 아래, 아오시마 신사는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1737년에는 당시 신사의 신관과 고관 외에는 신사 경내의 출입을 금지했던 규율이 철폐되었습니다.

아오시마 신사는 8 세기에 저술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 『고사기(古事記)』에 등장하는 야마사치비코와 도요타마히메의 전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전설은 사냥의 달인이었던 야마사치비코와 해신의 딸인 도요타마히메의 사랑을 다룬 창세 신화 중 하나로 천황 가문의 선조가 신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마사치비코와 도요타마히메는 바닷가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은 아오시마섬의 민간전승에 따르면 ‘오리가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오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윽고 두 사람은 아이를 가지게 되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이별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는 전설 속에서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의 세계와 신들의 세계가 분단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아오시마 신사에서는 야마사치비코, 도요타마, 그리고 전설 속 두 사람에게 만남을 계기를 제공하는 신인 시오쓰치노카미를 모시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오시마 신사를 가모쓰쿠미야(오리가 쉬어가는 신사)라고 불렀습니다. 야마사치비코와 도요타마히메에 관한 이야기는 아오시마 신사의 신화관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